

나주시, 남평 강변제방도로 확·포장 6월 착공

익산국토관리청, 지석천 제방하천 점용허가 최종 승인 25억원 들여 2.24km 공사...주민숙원사업 해결 기대

나주시 남평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석천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오랜 진통 끝에 첫 삽을 뜨게 됐다. 나주시는 최근 강인규 시장이 박성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남평 강변도로 제방도로 확·포장 및 치수 시설 설치를 위한 '지석천 제방 하천 점용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석천 제방도로는 남평읍 중앙교와 서산리(지방도 822)를 잇는 총 길이 2.24km 구간으로 강변 도시아파트 입주주민들의 광주 방면 주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방도로가 노면 폭이 협소해 비포장 갓길 주행으로 인근 상가와 주택에 분진, 소음 및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나주시는 2017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위

한 실시계획 용역 착수하고 이듬해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등 일찍이 착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공사 착공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놓고 익산청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난 4년 간 답보 상태였다. 강 시장은 하천점용 허가를 위해 2017년부터 줄기차게 익산청 방문해 오다가 최근 박 청장과의 면담에서 결실을 맺었다. 나주시는 내달 주민설명회를 거쳐 남평도시개발 사업비 25억원을 투입, 6월 중 총 길이 2.24km(폭 7~10m)의 지석천 제방도로 확·포장 및 친수·안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시는 도로 확·포장과 함께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제방 성토 및 보행자 겸용도로 및 화단, 보행자 데크, LED가로등, 횡단보도, 과속 카메라·방지턱 등 기반시설 설치 공사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남평읍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석천 제방도로 확·포장을 통해 원활한 차량 통행과 소음, 분진 문제 해결은 물론 지석천 치수 및 친수 설치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비록 긴 시간이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준 박 청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군 급식 로컬푸드 확대 장성군, 지원센터 현판식



장성군이 군(軍) 급식에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장성군은 지난 28일 삼서면에서 '군급식 로컬푸드지원센터' 현판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센터는 총면적 1159㎡에 식재료 전처리시설과 저온저장고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는 군비 포함 13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전처리 시설, 검질받기 등 식재료를 가공하기 쉬운 형태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센터 설립은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장성 삼서농협이 선정되면서 첫 발을 뒀다. 삼서농협은 육군 최대 군사교육시설인 상무대에 매년 32억원 규모로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군납 조합이다. 올해는 타 조합의 급식 물량까지 도맡아 총 50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군급식로컬푸드지원센터 개소로 삼서농협은 그간 외부업체에 위탁했던 식재료 전처리 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역외 유통 비용 절감은 물론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돈사 신축 허가 안된다” 화순 백아면 이장단 사퇴

주민들 “악취·수질오염 환경파괴” 지자체·사업주 “인허가 문제 없어”

화순 백아면 돈사 신축과 관련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역 이장단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은 물론 축사 경제지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이 있는 만큼 돈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와 돈사 사업주는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백아면 돈사 반대 대책위원회와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등은 지난 27일 화순군청 앞에서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 결의 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돈사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대책위 소속 백아면 이장 22명은 이날 화순군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군청의 돈사 허가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2017년 군이 돈사 신축 허가 당시 이장 1명에게만 내용을 전달했는데 해당 이장이 주민들에게 허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허가가 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고향에서 수십년째 살아온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은 단 하나도 듣지 않은 채 돈사 신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간 허가 취소를 위해 법적싸움을 벌였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을지라도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수 문제, 환경오염 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아무 죄 없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비판했

다. 반면 돈사 사업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가 지체되고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주는 “돈사를 짓기 위해선 돈사와 마을간 거리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우리 돈사 같은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과의 거리가 800m다. 돈사 건립에 필요한 이격거리 기준을 비롯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돈사 신축 허가를 취소할 명분과 근거가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흥댐 탐진호, 장흥호로 바꿔야” 장흥군의회·사회단체 “지역 상징성 고려 명칭 개정 필요”

전남 서남부 9개 시·군의 생활용수 공급원인 장흥댐 '탐진호'를 '장흥호'(가칭)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장흥군 의회 등에서는 장흥군 일원에 위치하면 서도 호의 이름이 '탐진호'라 불리고 있다며 지역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명이 포함된 '장흥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흥댐은 지난 2005년 6월 총 193㎢ 유역면적에 1억9100만ℓ 저수량을 확보하는 다목적댐이지만 호수 명칭은 '탐진호'로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사회단체도 장흥댐 수역면적이 장흥군 유지면과 부산면 일원으로서 지역 상징성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장흥댐이라는 명칭은 국토건설부가 지난 2005년 6월 중공사 당초 탐진댐으로 계획했다가 장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흥댐으로 변경 고시한 점도 명칭 변경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탐진호로 지정한 것은 국토건설부가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에서 강진군 목리에 이르는 총 56km에 이르는 국가 직할하천인 탐진강 줄기를 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작위적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장흥댐은 유역면적이 타 지



자체와 같거나 분쟁소지가 전혀 없는 장흥을 대표하는 호수”라며 “조속히 군 조례를 제정해 국토부에 탐진호라는 명칭을 장흥호로 바꾸는 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에 분포한 22개 각종 댐 가운데 해당 지자체 지명의 상징을 살려 호수명칭을 고시하는 곳은 강원도 춘천호를 비롯해 5개에 달한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이승욱 강진군수 등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관계자들이 출범식과 함께 플래카드 퍼포먼스를 통해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본격 추진

강진군이 주민 주도형 관광 가꾸기 사업인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출범식을 하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관내 45개 마을 대표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지정서 전달 이후 마을 대표들은 ‘깨끗한 강진,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자는 플래카드를 펼치는 퍼

포먼스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전남도의 시책으로 도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강진에서도 45개 마을을 선정했다. 마을별로 3년간 도비 36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원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영농쓰레기 수거·마을 꽃밭 조성·경관개선 등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을 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재래식 화장실 Zero 추진 함평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함평군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재래식 화장실 Zero in 함평'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래식 화장실 Zero in 함평 사업은 지난해 양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실시한 '사랑의 집짓기 in 함평'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아 관내 저소득 아동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부 터 함평군 지역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800여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14가구를 발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 현장실사를 거쳐 화장실 개보수가 시급한 10가구를 선정했다. 총사업비 6100만원을 들여 내달부터 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 중 5500만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마련했고, 박남평 월여면 신성영농조합법인 대표 100만원, 정계천 월여면 세화농장 대표 300만원, 이현희 월여면 바울농장 대표 200만원 등을 각각 후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